

대전북합터미널행 시외

버스 대전역 경유 시행

금산군이 금산군민의 기차 등 광역교통 이용 편의 및 방문객의 방문 편의 증진을 위해 대전북합터미널행 시외버스의 대전역 경유를 충남도 사업계획변경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시외버스 대전역 경유는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해 왔으나 이해관계자 협의 및 대전역 교통혼잡 우려 등의 사유로 추진이 어려워 잠정 중단됐었다.

금산군은 지난 2023년부터 충청남도, 대전시, 중부고속, 대전북합터미널 등과 대전역 경유를 위한 협의를 다시 개시해 지난해 큰 틀에서의 협의를 완료했다.

정류장은 대전역 인근 트램 추진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중부고속의 주 52시간제 준수 등을 고려해 대전역에서 도보 7분 거리인 동광장에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전역 경유 시행에 협조해 추진 관계 행정기관 및 중부고속, 대전북합터미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군민들의 광역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향병원성 곤충사료 수산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충북농업기술원은 6일, 자체 개발한 무지개송어 ‘곤충첨가 배합사료’ 특허기술을 노내곤충기업인 ㈜엔도모와 ㈜푸디웜에 이전하는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이전되는 기술은 동애등에 유충을 무지개송어 사료에 넣어 어분(생선가루) 사육을 줄이면서도 사육 안정성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설계한 배합사료 제조 기술이다. 연구결과, 무지개송어 배합사료에 동애등에 유충을 10% 첨가해 급여했을 때 사란 사료 대비 생존율이 22.2% 높아지는 효과가 확인됐다. 곤충 단백질이 영양 공급을 넘어 양식 과정에서의 건강 관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다.

곤충 산업은 생산 중심 단계를 넘어 고부가가치 사료 시장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흐름을 타고 있다. 특히 어분은 수입 의존도가 높고 가격 변동이 큰 편이라, 이를 일부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원 확보는 양식 현장의 비용 부담을 덜고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기술이전에는 청주의 ㈜엔도모(대표 박기환)와 음성의 ㈜푸디웜(대표 김태훈)이 참여한다.

두 업체는 곤충 사료·설비 분야에서 현장 사업화를 이어나 기업으로, 이번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수산물 배합사료 제품 경쟁력 강화와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박영욱 팀장은 “곤충 산업과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내포 종합의료시설 2단계 사업에 착수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필수·중증의료 기능 강화



충청남도가 필수·중증의료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박정주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성만제 보건복지국장, 홍성의료원, 충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용역 수행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사업(2단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의 과업 수행체계 및 추진 일정 등 전반적인 용역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2단계

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해 참석자 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단계 사업은 지역 필수·중증의료 기능 강화를 목표로, 의료 수요 분석을 통한 적정 시설 규모 검토, 단계별 사업 추진 전략 수립, 재정투자 계획 및 운영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단계별 추진을 위한 실행력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세종시 여민전 1월15일 첫 발행해

월 30만 원 한도 캐시백 9%...모바일 앱 개편 편의증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랑상품권 여민전의 올해 첫 일반 발행이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2026년도 여민전 발행 목표는 총 1,500억 원이며, 매월 총 125억 원을 선착순 발행할 계획이다. 개인당 충전 한도는 기존과 같이 월 30만 원이고 할인 혜택은 9%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 2만 7,000원이다. 단, 올해부터 여민전의 전용 앱이 새롭게 개편·출시되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여민전’을 검색해 새로운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한다.

기존에 보유·사용하던 여민전 카드는 그대로 이용가능하나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자동 이관되는 하나카드와 달리 신한·농협카드는 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수기로 등록해야 여민전 결제용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개편된 앱은 여민전 결제 가능 매장(가맹점) 조회부터 지역소식·생활정보까지 통합 제공하는 지역 종합

플랫폼으로의 기능이 강화됐다.

새롭게 선보이는 ‘소통참여’ 메뉴를 통해서도 세종시 주요 정책과 행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주들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여민전 가맹 신청을 하고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민전 사장님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가맹점주는 ‘사장님 서비스’를 통해 본인 점포에 대한 여민전 결제 매출과 정산 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어 체계적인 매출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 올해부터는 기존에 7~10일 정도 소요되던 가맹점 등록 승인 기간을 약 3일 수준으로 단축해 소상공인의 불편 사항을 개선했다.

류제일 경제산업국장은 “1월 15일 첫 발행을 시작으로 올해도 여민전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봉 기자

대전효문화뿌리축제 5년연속대상



대전 중구는 대전효문화뿌리축제가 제14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서 축제 문화유산/역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은 지난해 개최된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운영 성과 ▲친환경 축제 운영 ▲방문객 인지도 및 만족도 ▲지역민 지지도 등을 평가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최종 선정하는 권위 있는 시상이다.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2022년 프로그램 특별상 수상을 시작으로 5년 연속 수상하며 축제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확고히 인정받았다.

특히, 2025년에는 ‘효와 뿌리를 통하는 가족과 세대의 공감 축제’를 주제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23만여 명의 방

문객 유치와 72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며 지역 상생 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중구 관계자는 “축제에 참여하여 봉사해 주시고, 전국에서 찾아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돼 감사드린다”라며, “올해도 다양한 콘텐츠 운영 성과 ▲친환경 축제 운영 ▲방문객 인지도 및 만족도 ▲지역민 지지도 등을 평가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최종 선정하는 권위 있는 시상이다.”

한편, 중구는 6일, 민·관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들을 위한 주민주도 상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이웃애(愛) 돌봄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413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이번 돌봄추진단은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상시 돌봄체계의 시작을 알렸다.

이채봉 기자

대전 소상공인 살리기 전방위 지원 나선다

2026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사업비 945억 원 마련...3대 핵심 지원책 추진

대전시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945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시정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주역”이라며, 금융자금·고정비·소비축전 전 분야에 걸친 3대 핵심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경영 위기 극복과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전형 초저금리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개선·지원한다.

‘24년 4,000억 원 규모로 처음 도입한 초저금리 자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000억 원을 운영하며,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연 2.7% 이자를 지원한다.

‘22~’25년 자금 지원업체에 대해 지난해에만 315억 원의 이자 부담을 경

감했다. 올해 역시 약 1만 8,000개소의 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3,150억 원은 시와 6대 금융기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카카오)이 공동 출연한 210억 원을 기반으로 1월 6일 전면 시행된다.

또한, 대전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회복 지원과 고정비용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지난해 경영 위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영회복지원금을 올해 설 명절 전 초기에 시행하여 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3월 말까지 지원한다.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주는 임대료 30만 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주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지속한다.

명절 기간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

이채봉 기자

시통밀

반도체 중심도시

오산